

■ [별첨] 대안교과서/교학사교과서/국정교과서 서술 대비표

	대안교과서(2008)	교학사(2013)	국정교과서(2017)
총평	<p>식미지미화론, 식민지근대화론</p> <p>1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 [14~16] 공부할 것인가</p> <p>① 자유민주주의의 도입 :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성립. 대한민국의 법통의 기원은 3.1운동-한성정부-상해 임정-대한민국</p> <p>② 경제성장의 의미 :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조건을 20세기 전반에서 추적</p> <p>③ 세계 속 한국 :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흐름에서 한국사 재해석</p> <p>④ 바람직한 통일의 모색 : 반북주의, 반공주의로 회귀. 대결주의 시각에서 남한의 승리를 이끈 요인 식민지근대화론으로 해석</p> <p>[78] 일제의 지배와 민족독립운동의 전개 “일제의 한국 지배는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체제였다. 국내외의 한국인들은 불굴의 투쟁으로 독립의 권리를 끝내 쟁취하였다. 그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p>	<p>→ 대안교과서 식민지근대화론 기초 유지</p>	<p>→ 논란이 된 사회경제사, 문화사 서술이 대폭 축소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적 시각이 파생시킨 축소, 편향, 부실 서술의 피해는 여전한</p> <p>① ‘반쪽 독립운동사’ : 사회주의운동 계열 누락, 대중운동 1920년대 이후 운동 서술 누락시킴</p> <p>② 민족주의 우파 중심 서술 : 실력양성운동 부각, 자치운동 언급 안함</p> <p>③ 이승만의 외교독립활동 부각 : 미주 독립운동 서술비중 높음</p> <p>④ 친기업/친재벌적 서술 : (대)김성수/박흥식/이병철/정주영-(교)김성수/박승직-(국)대표적 기업인-유일한/이병철/정주영</p> <p>⑤ 농민·노동운동 서술 축소</p> <p>⑥ 일제 수탈과 강제동원 피해 사실 애매하게 서술</p>
<p>㉑ 이승만의 라이벌 ‘안창호’의 경력과 대한인 국민회 서술 오류 반복</p>	<p>4 항일 민족독립운동의 전개 115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p> <p>[115] 안창호(1878~1938) ...1902년 미국으로 건너가 공립협회를 만들고 《공립신보》를 발간...1906년 귀국하여 양기탁·신채호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으며,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1910년 이후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여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조직하여 초대 총회장에 취임하고, 1913년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3·1운동 후 상하이임시정부에 참가하여</p>	<p>05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와 사상적 배경 210쪽 신민회의 활동</p> <p>[210] 안창호(1878~1938) 신민회, 청년 학우회, 흥사단을 조직하고,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3·1 운동 후 상하이 임시 정부의 내무총장이 되어 독립운동을 하였다.</p> <p>05 국외 민족 운동의 전개 274쪽 소제목 : 국외 한인 사회와 독립운동</p>	<p>1-2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 208쪽 소제목 : 1910년대 국외 민족운동</p> <p>[208] ...미주 지역의 한인들은 대한인 국민회를 결성하였다 (1910)... (사진설명) 안창호와 대한인 국민회 안창호(앞줄 가운데)는 1912년 샌프란시스코에 대한인 국민회 중앙 총회를 설치하고,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p>

	<p>내무총장 겸 국무총리대리직을 맡았다....</p>	<p>[274] 국민회 전명운·장인환 의사의 의거를 계기로 1910년에 박용만, 안창호 등이 해외 한인들을 총망라하여 결성한 한인 단체.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두었다.</p> <p>← [검토본]에 이승만의 과도한 언급에 비해 안창호는 인물 설명도 없다는 지적이 있다 [최종본]에 인물 설명 추가</p>	<p>← 실린 사진은 안창호가 1915년 하와이 지방총회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 ← 1912년 중앙 총회가 설치된 것은 맞지만, 안창호는 중앙 총회 초대회장이 아니다. (초대 최정익, 2대 윤병구, 3대 안창호)</p>
<p>㉑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신조어 교학사-국정 교과서에서 재현</p> <p>㉒ 실력양성운동 긍정적 평가만 서술</p> <p>㉓ 1920년대 자치운동 주장한 이광수, 최린, 김성수 등 서술 없음 vs. 검정교과서 : 실력양성 운동의 의의와 함께 함께 지적</p>	<p>3 민족주의 대중운동 120쪽 소제목 : “ 대두 ” “ 언론의 성장 ” 121쪽 소제목 : “물산장려운동” 122쪽 소제목 : “항일학생운동”</p> <p>[120] 실력양성운동은 한국인이 근대 문명을 이해하고 학습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증진하였다.</p>	<p>2 민족 실력 양성 운동 258쪽 소제목 : “실력 양성론의 대두” “물산 장려 운동” 259쪽 소제목 : “교육과 과학을 통한 민족 실력 양성 운동”</p> <p>[258~259] 당장 일제와 싸우기보다는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장래의 독립을 준비하자는 주장...우리 민족이 3·1 운동을 통하여 독립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으니 이제는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 역량을 기르고 외교 활동을 통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독립을 하자는 새로운 전략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독립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p>	<p>2-2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전개 217쪽 소제목 : “민족 실력 양성 운동의 대두” “물산 장려 운동” 218쪽 소제목 : “민립 대학 설립 운동”</p> <p>[217]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로 식민 통치 방식을 변경...그 틈을 이용하여 일제와 충돌을 피하며 장기적으로 민족의 힘을 키워 독립을 준비하자는 실력 양성론이 대두...다양한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었다.</p>
<p>유신체제 당시 국정교과서로 회귀 : 사회주의가 수용되자 민족 운동이 분화되고 민족 운동 안에서 대립이 심화된 것을 연상시키는 퇴행적, 편향적 서술</p>	<p>4 민족주의 계급운동 122쪽 소제목 : “공산주의 정당의 출현”</p> <p>[122] 1917년 러시아혁명의 자극을 받아 한국에서도 공산주의운동이 일어났다. [123] 1920년대 중반 민족운동은 개량적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급진적 공산주의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다.</p>	<p>2 대중적 사회 운동의 전개 261쪽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과 조선 공산당 창당</p> <p>[261] 1920년대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으로 나뉘게 되었다. ... 두 진영의 운동 간에는 갈등이 상존하였고, 항일을 위해 하나로 단결하자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지만 이념적인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였다.</p>	<p>2-4 신간회와 항일 학생운동 220쪽 소제목 : “사회주의의 수용”</p> <p>[221] 3·1운동 이후 민족 운동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청년 지식인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나타났다. 사회주의 사상은 신문·잡지 등 언론 매체와 강연회 등을 통해 확산되었다. 또한 여러 사회주의 단체가 생겨났고, 비밀리에 조선 공산당이 결성되었다(1925). 국내 민족 운동 진영은 크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화되었고, 이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로 대립하였다.</p>
<p>㉑ 신간회 결성 주도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해소’의 책임</p>	<p>4 민족주의 계급운동 122쪽 소제목 : “공산주의 정당의 출현” 123쪽 소제목 : “신간회의 창립과 해체”</p> <p>[123] 1926년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협동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p>	<p>3 민족 연합 전선과 민족 운동의 시련 264쪽 소제목 : “6 10 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265쪽 소제목 : “신간회 운동”</p> <p>[265] 자치론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민족 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주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였다. 사회주의 세력도 치안 유지법의 실시(1925) 이후, 일제</p>	<p>2-4 신간회와 항일 학생운동 220쪽 소제목 : “사회주의의 수용” 220쪽 소제목 : “신간회의 창립” 221쪽 소제목 : “신간회의 활동과 해체”</p> <p>[220] 자치론에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민족 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주의 세력과의 협력을 모색하였다. 사회주의 세력은 치안 유지법 실시 등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p>

<p>사회주의 세력으로 편향 서술</p> <p>☞ 사회주의 세력 신간회 ‘해소’ 주장. 해소는 ‘해체’와 엄연히 다름</p>	<p>코민테른은 1927년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협작이 실패한 것을 계기로 각국에서 집행되던 민족협동전선의 해체를 지시하였다. 1931 사회주의 세력은 코민테른의 지시에 응하여 신간회를 해체하였다. 이후 공산주의 세력은 적색농민조합과 같은 급진적인 공산주의운동에 주력하였다.</p>	<p>의 탄압과 내부 갈등으로 역량이 약화되자 민족주의 세력과 의 연합에 주목하였다.</p> <p>코민테른에서도 노선이 전환되어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대 파기와 독자적 운동을 지시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은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였다. 결국,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해체되고 말았다.</p>	<p>고 계파 갈등으로 힘이 약해지자 민족주의 세력과 의 협동에 주목하였다.</p> <p>[221] 사회주의자들이 반발하여 신간회의 발전적 해체, 즉 ‘해소’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신간회는 사실상 해체되고 말았다.</p>
<p>제2차 세계대전 파시즘 대두를 전체주의로 표현, 소련 스탈린체제 포함해 설명</p>		<p>2 대공황 발생과 전체주의의 대두 [237] 전체주의의 대두</p> <p>(용어설명) 전체주의 : 넓은 의미에서 전체주의는 강제와 억압을 통해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지시하고자 하는 강력한 1인 1당 독재 체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체주의는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 나치 독일뿐 아니라 스탈린 치하의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포함하기도 한다.</p>	<p>3-1 전시 수탈체제와 민족 말살 정책 [228] 전체주의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 대공황을 전후한 시기 국제 사회에 전체주의가 등장하였다.…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며 반대파에 대한 대숙청을 실시하였다.</p> <p>(용어설명) 전체주의 : 개인은 오로지 전체, 즉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보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념이나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나 소련의 스탈린체제가 대표적이다.</p>
<p>일제-총독부-일본 정부 입장 서술</p>			<p>[230]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체제를 구축 [231] 조선 신궁은 한국 내 신사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종일전쟁이 일어나자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를 도입</p>
<p>식민지 피해 서술 축소/회피 ☞ 피해사실 축소, 개악된 경우</p> <p>☞ ‘수많은’ ‘가혹한’ 등 강제동원 피해 구체성 없이 서술</p>	<p>☞ [114](사진설명) 제암리학살사건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 앞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던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 아리타 도시오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단의 군경이 주민을 집단살해한 사건이다.…교회 안에서 죽은 사람이 22명, 뜰에서 죽은 사람이 6명이었다.…</p>	<p>☞ [253]일제는 헌병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차별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인을 체포하고 고문하였으며, 화성 제암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학살 만행을 저질렀다. (사진 설명) 제암리 사건(1919.4.15.) 일본 군인과 경찰이 3·1운동에 참가한 화성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한 후 문을 폐쇄하고 불을 지르고 무차별 총격을 가해 주민 23명을 학살한 사건이다.</p> <p>☞ [247]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 …수많은 한국인을 광산이나 군수 공장 혹은 전쟁 시설에 동원하였다.…우리나라의 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침략 전쟁에 동원하였다. 동원된 여성들은 일본과 한국의 군수 공장에서 일하였고</p>	<p>☞ [210]경기도 화성의 제암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p> <p>☞ [230] 전시 동원 체제와 물자·인력의 수탈 수많은 청년을 전쟁터에 몰아넣었다. 한국인 노동력도…일본, 중국,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배치되었다.…많은 여성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여…많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였다.</p>

<p>㉔ 오랜 기간, 가장 광범위한 지역으로 끌려간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상이 드러나지 않는 서술</p> <p>㉔ 일반인들까지 강제 동원이 아닌 자발적 전쟁 참여, 참가로 서술</p>	<p>㉔ [92~93] 일본군은 한국, 만주, 중국, 동남아, 남양 군도에 이르는 전 주둔지에서 군 시설의 일부로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그곳에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출신의 여인들이 위안부로 노예처럼 수용되어 일본군에 성적 위안을 제공하였다. (사진) 국정교과서 교체 사진과 동일</p> <p>㉔ [132] 국내의 전쟁협력과 저항 총독부는...여지 없이 탄압했으며, 이에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일제의 폭력에 굴종하였다...보통의 한국인들도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전시체제에 참여하였다.</p>	<p>㉔ [최종본] 중국과 동남아 일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하였다. (←[검토본] : 일부 여성들은 중국·동남아 일대·필리핀 등지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당하였다)</p> <p>㉔ [288] 일제 침략 전쟁에 대한 협력과 저항 일제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굴종과 전쟁에 대한 협력을 요구하였고, 강요를 이기지 못한 이들은 이에 따랐다...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침략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였다...일반인들도 징용이나 징병에 응해야 했다.</p>	<p>㉔ (역사돌보기) 한국, 타이완, 중국을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등 여러나라의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어 피해를 당하였다. (사진) 교체한 사진 대안교과서에도 수록</p> <p>㉔ [231] 전시 체제하 친일 반민족 행위 이들은 개인의 이익의 위해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였고, 한국인의 전쟁 참가와 식민 정책 협력을 독려</p>
<p>현대사 총평</p>	<p>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독재 미화 부국의 아버지 박정희 독재 미화 경제성장 신화 반공교과서로 회귀</p> <p>4. 해방과 국민국가의 건설 [134]공산주의 세력의 도전을 물리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하는 건국의 1단계</p> <p>5. 근대화 혁명과 권위주의 정치 [178] 근대화혁명. 역사적으로 축적된 성장의 잠재력 폭발. 동시에 근대화 세력에 맞서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장한 시기. 건국의 2단계로서 산업화의 기간</p>	<p>대안교과서 기조 증강</p>	<p>대안교과서-교학사-국정교과서 기조 유지</p>
<p>5.10 총선거 극소수 친일파 피선거권 제한 사항을 굳이 서술함으로써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대 해석 위험 교학사에서 빠졌던 내용이 다시 국정교과서에서 부활</p>	<p>2 대한민국의 탄생 [143] 제헌의회 의원들의 출신을 통해 본 대한민국 건국 세력 ... 건국 과정에서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친일파는 모두 배제되었다. 5·10선거에서 만 2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피선거권을 가졌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제국의회 의원, 관리로서 판임관 이상 직위자, 경찰관·헌병·헌병보로서 고등관 이상 직위자, 훈7등 이상을 받은 자, 중추원의 부의장·고문·참의 등에게는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않았다.</p>		<p>1-2 대한민국의 수립 [252] 한편 5·10총선거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피선거권은 법률로 제한되었다.</p>
<p>이승만의 반민특위 인식과 반민특위 와해로</p>	<p>[145쪽]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우파 집권세력은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친</p>	<p>검토본 : 1949년 6월 경찰은 반민 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별 경찰을 무장해제시키기도 하였다. 이승만은 공산 세</p>	<p>이승만 정부 또한 반민특위 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공산화 위협에 대처해야 할 시급성 등을 들어 반공 경향이 풍부</p>

<p>친일파 청산 좌절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서술</p>	<p>일파 청산보다 내부 단결과 태세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였다. 1949년 6월 반민특위가 경찰 간부 세 명을 체포하자 경찰부대가 반민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하여 위원회의 요원들을 연행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p>	<p>력의 소탕에 경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찰의 행동을 묵인하였다. 최종본 : 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특별 경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치안 유지와 공산 세력 저지의 공을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1949년 6월 경찰은 반민 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별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기도 하였다.</p>	<p>한 경찰을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1949년 일부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등 반민특위 활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p>
<p>3·15 부정선거 책임 소재 모호하게 서술</p>	<p>1 4·19민주혁명 [173] 노쇠한 대통령의 후계를 노리는 자유당 강경파의 집권욕은 국내 정치의 혼란을 부채질하였다. 1960년 3우리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선거 직전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이승만은...당선되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이미 84세인 이승만의 유고 시에 대통령을 승계할 부통령 선거에 집중되었다...실제로 민심의 광범한 이반으로 선거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었던 자유당의 강경파는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획책하였다. ...그에 대한 분노는 부통령 선거 결과가 공고되자 폭발하였다. [174] ...정부는 시위대를 진압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서울 시내로 군대를 출동시켰다...궁지에 몰린 이승만은 4월 26일 하야를 발표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p>	<p>2 이승만 정권의 시련, 성취와 함정 [322]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정부는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다(3·15 부정 선거). 야당은 선거 무효를 선언했고,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고, 혁명은 성공하였다(4·19 혁명).</p>	<p>1-5 4·19혁명과 장면 정부의 등장 [261] 1960년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병사하자 이승만은 단독 후보로서 당선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유고 시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에 자유당 이기붕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공권력을 동원하여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였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를 통해 하야 담화를 발표하였다.</p>
<p>5.16군사쿠데타의 정수 '혁명 공약'</p>	<p>[183] 혁명공약</p>	<p>[328] 혁명공약 ← 민정이양을 약속한 제6항 빼고 수록했다가, 비판이 일자 6항까지 재수록함</p>	<p>[264] 5·16 군사 정변 주도 세력이 내세운 '혁명공약' ← 변조된 혁명공약 수록 ← 출전 교체 수정함</p>
<p>소련의 한반도 적화 전략 - 소련은 해방직후 조만식을 지도자로 고려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직후부터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했으며, 북한을 공산화함으로써 위성국을 창설하려 했다고</p>	<p>[281] 소련의 진주와 북한의 상황 소련은 이미 1945년 9월 20일경에 북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결심을 굳혔다. 소련은 33세의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했다.</p>	<p>[306] 북한에서의 정권 수립 과정 소련은 북한에서 1945년 8월 25일부터 군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9월에 스탈린은 북한에 부르주아 민주정권의 수립을 지시하였다. 지시의 요점은 인민민주주의운동을 통하여 공산화의 길을 북한이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p>	<p>[248]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광복 [286] 김일성 독재체제의 구축 스탈린은 반일 민주주의 정당의 연합을 통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하라는 지령을 소련군 사령부에 하달하여, 38선 이북에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 김일성은 스탈린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p>

<p>북한의 토지개혁</p> <p>- 북한은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토지의 경작권만을 부여 받았다고 왜곡</p>	<p>[282] 분단의 심화</p> <p>그러나 분배된 것은 토지의 경작권이지 소유권이 아니었다.</p>	<p>[322] 북한의 토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p> <p>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은 토지를 농민에게 오로지 경작권만을 분배한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었다.</p>	<p>[254] 대한민국 수립 전후의 경제</p> <p>또한 경작을 못하게 되면 아무 보상 없이 국가에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농민들은 실제로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만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p>
<p>1950~60년대의 노선 대립</p> <p>- 북한은 1950~60년대에 혁명방식과 경제건설방식을 둘러싸고 정치투쟁이 벌어졌는데, 이를 모두 김일성이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반대파를 숙청한 것으로 왜곡</p>	<p>[286] 6·25전쟁과 전체주의 체제의 시작</p> <p>김일성은 남한 내의 조직 붕괴로 정치적 기반이 약해진 남로당 지도자 박헌영을 전쟁의 책임을 물어 숙청하였다. 이듬해부터는 이른바 ‘반종파투쟁’이라 하여 8월종파사건에 연루된 반대파 세력의 주변인물은 물론, 6·25전쟁 당시에 월남한 사람의 가족까지 숙청하였다. 전쟁 직후 숙청된 남로당의 잔존세력까지 이 시기에 모두 숙청되었다.</p>	<p>[342] 숙청을 통한 독재 체제의 확립</p> <p>김일성은 6·25전쟁의 실패를 남로당에 전가하고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그는 1956년 소련파와 연안파를 숙청하고, 1967년 갑산파를 숙청하는 것으로 일인 독재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p>	<p>[286] 김일성 독재체제의 구축</p> <p>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패전의 책임을 물어 박헌영 등 남로당계를 숙청하고, 1956년 8월 반종파 투쟁을 통해 소련파와 연안파 등 반대파들을 차례로 제거하여 1인 독재 권력을 강화하였다.</p>